

# 늦봄 일기



이재우

목포해양대학교 명예교수

## 4월은 잔인한 달

국내외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진 사월이다. 이 년째 잔인한 4월을 세계인 모두가 겪고 있다. 4월 3일,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22만 톤 급의 대형 유조선이 다행히 정상화되었고, 다시 운항을 계속하여 우려했던 물류 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

4월 7일,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선에서 분노한 시민들은 야당 입후보자에게 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4월 9일, 영국여왕의 부군 필립 공(99세)의 왕실 장례식이 사상 처음 TV로 중계되었고, 4월 5일, 1965년 뮤지컬 영화의 고전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남자주인공을 연기한 캐나다 배우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별세(92세), '에틸바이스' 대령은 하늘로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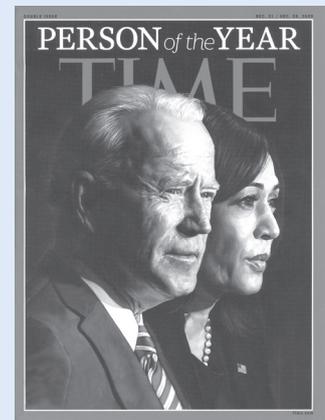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년, 아직도 사고 원인과 책임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4월 19일, 4·19혁명 61주년 기념일, 코로나19로 집회가 제한되어 쓸쓸했다.

국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백신 소동이 일고 있다. “다시 존경받는 미국,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바이든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아세아 인 증오”(Asian Hate Crime)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에 바이든 정부는 지지하고 있다.

UN산하 전문기구, 국제해사기구(IMO)의 설립 목적이 “안전한 해상수송 깨끗한 해양보존 Safer Shipping Cleaner Oceans”인데 아무 말도 없고, 한국, 대만, 중국만이 반대하고 있다. “바다가 죽으면 인류도 죽는다-쿠스토(J. Cousteau, 프랑스인, 해중과학의 선구자)”

## 변모하는 미국

퓨리탄(Puritan)들이 대서양을 건너 상륙한 신대륙, 미국을 하느님이 주신 에덴(Eden)에 비유하고, 「성서에 기반을 둔 국가」(Bible Commonwealth)를 건설하며, 세계의 평화 수호자임을 자처해 온 미국은 「melting pot」(도가니, crucible, 잡다한 인종·문화가 뒤섞인 나라, 미국)에서, 국민의 구성 요소들이 각각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이제 「salad bowl」(샐러드용 보시기)로 바뀌어가고 있다. 다양한 미국의 이민이 미국인으로 통합(統合)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각각의 민족이 각자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보시기에 담은 샐러드처럼 공존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America First」(미국제일), 「Make America Great」(위대한 미국건설)를 외치면서, 「성서에 기반을 둔 국가」로 면면히 이어온 미국은 혼돈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TIME>

미국사회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전통, 미국의 꿈[American Dream, 기회 균등에 의한 성공과 물질적 번영이라는 미국인의 이상], 세계 정치에서 미국의 지도적 역할 등을 근거에서부터 다시 평가하려는 경향이 커졌다.

“분열의 정치 치유와 글로벌 리더 복귀”를 약속한 바이든 시대, 트럼프 열광 현상인 「트럼프즘」(미국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다자주의적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돌아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바이든 국제주의」로 변화와 발전을 향한 미국재건은 이제 시작했다.

인종차별(racialism) 금지의 표상, 첫 비백인(非白人) 아시아계 여성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의 영향력 발휘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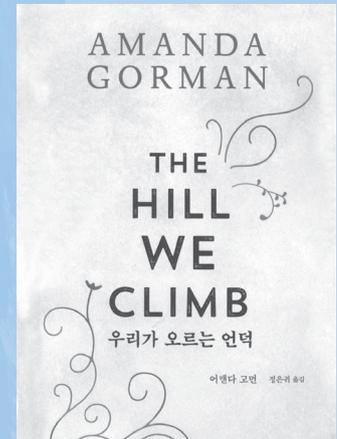
## 고먼의 『우리가 오르는 언덕』

2021년 1월 20일, 어맨다 고먼(Amanda Gorman)은 미합중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시를 낭독한 여섯 번째 시인이자 최연소 시인이 되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 다음으로 무대에 오른 고먼은 전 미국을 사로 잡고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고먼의 시 '우리가 오르는 언덕: 취임식 축시(The Hill we climb: An inaugural poem for the country)'는 이제 한국에서도 특별판(영한 대역)으로 2021년 3월 30일 초판이 출간되었다. 오프라 윈프리의 매혹적인 서문이 실린 이 기념 시집은 미국의 가능성을 약속하고 시의 힘을 확인시켜줄 것이다.

환경, 인종 및 젠더 평등을 위한 운동가인 고먼의 행동주의와 시는 <투데이 쇼>, <PBS 키즈>, <CBS 디스 모닝>, <뉴욕타임스>, <보그>, <에센스>, <O 매거진> 등에 소개됐다. 하버드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후 현재 고향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다. 2017년 전국 60여 곳 이상의 도시, 지역, 주(州)의 청년 계관시인들을 후원하는 어번 워드에 의해 미국 최초의 청년 계관시인으로 선정됐다.



어맨다 고먼



『우리가 오르는 언덕』 특별판 (영한 대역)

Where a skinny Black girl,  
 Descended from slaves and raised by a single mother,  
 Can dream of becoming president,  
 Only to find herself reciting for one.  
 여기서 깡마른 흑인 소녀,  
 노예의 후손으로 홀어머니가 키운 그 소녀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꿀 수 있다지,  
 대통령에게 시를 낭독하는 자신을 문득 보네.

『The Hill We Climb, 우리가 오르는 언덕』 중에서, 정은귀 옮김

##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에버기븐호

2021년 3월 23일, 22만 4000톤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Ever Given)호가 좌초 사고로 수에즈 운하를 딱하니 가로막은 지 11일 만에 정상화되어 발 묶였던 422척이 통항을 완료했다. 국제 유가는 오르고, 물류 수송이 차질을 빚고, 운하에 갇힌 배에서 운송 중인 동물들이 굶어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인류의 위대한 업적인 수에즈 운하가 배 한 척 때문에 재앙으로 돌변하면서 물류 대란이 우려되었으나, 4월 3일 61척을 끝으로

모든 대기 선박의 통항이 완료되었으니 천만 다행한 일이었다.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길이가 190km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통로로 전세계 물동량의 10~12%를 담당한다. 지난해 약 1만 9천척, 하루 52척의 선박이 이 운하를 통과했다. 운하를 통과하는 각 선박의 통항료는 최대 30만 달러다.

좌초 원인,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고, 피해 배상 문제도 남은 과제다. 수에즈운하관리청(SCA)은 이번 사고로 인한 손실을 약 10억 달러(약 1조 1200억원)로 추정하고 있다. 이집트 최초의 최연소(29세) 여성 선장(마르와 엘셀레다르)이 좌초선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가짜 뉴스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면서 비난이 집중된 가운데, 4월을 맞는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그린호가 이집트 수에즈운하를 가로막고 있다. 해당 선박 좌초로 양방향 통항이 막혀 100여 척의 선박 운항이 중단됐다. <인스타그램 캡처>

## 앞으로 3년

기후 문제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섯 명의 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는 2017년 여름 《네이처》에 기고한 글에서 탄소 배출량이 하강 곡선을 그리게 할 수 있도록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확히 <3년>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간을 '지구를 구할 수 있는 3년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앞으로 3년 동안에 배출량이 하강 곡선을 그리지 못하게 되면 파리기후협정에서 채택된 섭씨 2도 목표 달성은 실패할 것이며, 그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치명적인 사태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후 문제에 관한 모범적으로 대처하는 국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어쨌든 서구 선진국 쪽에는 단 한 나라도 없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까지 했다. 지금까지 누려 온 삶의 양식을 앞으로도 계속 누리려고 노력할 뿐이었다.

## 기후변화 대책에 앞장선 바이든

4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화상으로 진행된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막 연설을 맡았다. 그는 기후 변화를 "실존적 위기"라고 부르며 이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지구 기온변화 1.5도가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는데,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의 살길은 온난화 1.5도, 10년내에

탄소배출을 45% 줄이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은 '2050 탄소중립' 행동을 착수했는데, 영국은 68%, EU는 55%, 일본은 46% 감축 계획을 제시했고, 한국은 '탈(脫) 석탄' 계획을 선언하고, 24% 감축 기준안을 올해 말까지 상향 조정기로 했다. 조만간 전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체제를 재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EU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는 상반기 중에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시나리오를 만들어 발표한다. 예컨대, 수송 분야에서는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을 점토하고, 에너지 분야 역시 석탄 발전의 퇴출 시점을 언제로 잡을 지, 재생에너지 생산 방식 등.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지탱한 석탄 발전이나 내연기관 산업은 퇴출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들 산업체 종사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쓰레기를 줄이는(Zero Waste) 순환경제 구축도 시급한 과제다.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가 곧 발족하여 지휘할 것이다.



10년 내 탄소배출 45% 줄이기 속도전 (2010년 대비) <동아일보>

### 가뭇에 한줄기 소나기

작년에는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아카데미 상>을 타면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데, 4월 26일에 윤여정 배우(75세, 영화 「미나리」에 출연)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잔인한 4월에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 준 쾌거였다.

윤여정은 아카데미 상을 탔으니, 김여정은 노벨 평화상 타기를 바라면서 기다려 보자. 찬란한 봄을..., 찬란한 슬픔의 봄을...

“세상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The world is passing away.

-The Bible (요한 1서)

“코로나19, 이 또한 지나가리라.”

COVID PANDEMIC, This too shall pass. - CNN

<참고문헌>

- 1. AMANDA GORMAN, 정은귀역, 『The Hill We Climb 우리가 오르는 언덕』, 은행나무, 2021.
- 2. TIME(April 26/ May 3. 2021, Dec. 21/Dec. 28. 2020)
- 3. 동아일보 관련기사

※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